

Exxon, 차세대 특수 폴리머 개발

에틸렌 탄성중합체 <Vistamaxx> ... 메탈로센 촉매공정 기술 확고

ExxonMobil Chemical은 2003년 6월24일 차세대 특수 중합탄성체인 <Vistamaxx>를 개발 출시했다.

ExxonMobil Chemical에 따르면, <Vistamaxx>는 특수 중합탄성체로 고객의 광범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 촉매기술과 생산제품 디자인 공정을 개발시켜 출시한 제품으로 ExxonMobil에서 특허를 보유중인 <EXXPOL> 메탈로센 촉매기술과 중합반응공정을 이용해 탄성, 유연성, 응착력, 강도와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ExxonMobil Chemical의 부대표인 Mary Ahner에 따르면, <Vistamaxx>가 ExxonMobil이 보유중인 메탈로센 촉매기술의 우수성을 더욱 입증하게 됐고 이에 따라 중합탄성체 공급의 리더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xonMobil의 에틸렌 중합탄성체 글로벌 마케팅 매니저인 Jim McKinley는 ExxonMobil은 최초로 10년 전부터 Plastomers를 소개했는데 메탈로센 촉매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석유화학기업의 수년간에 걸친 쟁점이었었는데 에틸렌 탄성중합체로써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강조했다.

<Vistamaxx>는 ExxonMobil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메탈로센 촉매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루이지애나주 Baton Rouge에 새로이 건설된 공장에서 생산해 전세계에 판매하게 된다.

한편, ExxonMobil의 또다른 에틸렌 탄성중합체인 Exact(R) Plastomers, Vistalon(R) EP(D)M, Exxelcor(TM)은 화학적으로 수정된 폴리머이고 Santoprene(R)는 열성형 중합 탄성체이다.

에틸렌 중합탄성체들은 자동차, 건설, 전기, 식품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02>